



더민주 정세균 더민주 송영길 새누리 이정현 국민의당 박지원 국민의당 박주선

여야 '호남 당대표' 될까

새누리 이정현 도전장 내밀어
더민주 정세균·송영길 '물망'
국민의당 박지원·박주선 거론

여소야대의 지각변동이 이뤄진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는 지도부 선출을 놓고 물 밑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정치인들이 선두 주자로 부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3선의 이정현 의원(순천시)이 주목받고 있다. 여당의 불모지인 전남에서 지역주의 장벽을 두 차례나 넘어선 기세를 모아 '호남 출신 최초 새누리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순천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새누리당 당 대표에 도전해 대한민국과 새누리당을 바꿔보겠다"고 선언했다. 하위 당직자에서 출발, 3선의 정치적 입지를 쌓아온 '스토리'가 있는데다 여당 총선 패배 원인인 공천 파동에서도 자유로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박(친 박근혜) 핵심이어서 당내 비박(비 박근혜) 진영의 견제가 불가피하고 당내 호남 기반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히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당권을 놓고 김종인 대표 진영과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출신의 정세균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의 성품상 대선까지 공정하고 원만한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데다 대선 출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그동안 진 주류 성향을 보여 온데다 강기정 의원 등 당내 지지 세력이 20대 총선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도 부담이다.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도 더민주 당권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당권과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호남 의원들 간의 물 밑 경쟁전이 치열하다. 당장, 당권을 놓고 박지원, 박주선 의원의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선이라는 큰 판을 앞두고 연륜과 경험, 전략 등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해왔다. 계파색이 열은 박주선 의원은 원칙적이고 공정한 대선 관리가 가능, 순화규 전 대표 등 외부 대선 주자의 참여를 이끌며 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미 상임 대표를 맡고 있어 당권보다는 대권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복귀한 전북의 정동영 의원도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권보다는 마지막 대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는 호남 의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의 주승용 의원과 광주의 김동철, 장병완 의원 등이 원내대표에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합의 여부가 원내대표직의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북 몫을 강조하고 나선 유성엽 의원도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지도부 구성은 향후 정국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호남 정치인들이 각 당의 지도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어등산 살인’ 아쉬운 시민의식 ▶6면

제 61회 호남예술제 개막 ▶17면

‘자동차벨리’ 일본 기타큐슈 ▶18면



철쭉 꽃길... 불타는 캠퍼스의 봄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23.1도를 기록한 18일 광주시 북구 동강대 교정을 찾은 대학생들이 활짝 핀 철쭉 꽃길을 걸으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발전·정치 위상 강화...이젠 실용이다”

3당 체제 ‘호남정치’

◎ 호남 표심의 의미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양당 체제로는 정권교체가 힘들다. 특히 3당 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호남 주도의 정권교체는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표를 줬다”

광주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50대 택시기사는 “선거기간 내내 승객들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

제1 야당에 표 밀어줘도 정치적·경제적 변방...실망감

야권 헤게모니 잡고 대권 후보 경쟁 유도 ‘전략적 선택’

동대표가 즐기게 외쳤던 ‘양당 심판론’이 사실상 야권의 뒷발인 호남 유권자들에게 먹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야권 재편을 통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호남 유권자들의 실용적인 ‘전략적 투표’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거때만 되면 표를 달라는 더민주의 나태함과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이 국민의당을 선택하게 했다”며 일종의 ‘저항투표’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호남 민심의 이면에는 항상 제1야당에 표를 밀어줘도 정치적·경제적 ‘변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란 유효한 선택지가 등장하면서 표심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호남 자민련’ 혹은 ‘호남 고립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결과는 호

남 유권자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절묘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차기 야권의 대권 후보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경고를, 또 한 명의 대권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는 정치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번 총선 정당 득표율에서 나타났듯이 호남은 야권의 헤게모니를 잡고, 대권 후보들을 경쟁 시키는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유를 원하는 자, 금남로로 오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3일 개막...공연·체험 등 다채

다. 또 우체국 앞에는 오후 4시까지 청소년 대상 노래·댄스 경연대회 ‘K-POP 광주 아이돌 거리축제’ 무대가 마련된다. 오후 3시부터 ‘민주의 종’ 앞에서는 장재인 콘서트가 열린다. 강진 출신 싱어송라

이터 장재인은 지난 2010년 Mnet ‘슈퍼스타K’ 시즌2에 출연하며 독특한 음색으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또 오후 5시까지 여우별밴드, 윤영훈 퀸트, 재즈밴드 ‘Soof trio’가 흥겨운 음악을 선사한다.

그밖에 분수대 일원은 문화체험마켓(20팀)과 플라마켓(20팀) 공간으로 꾸며지고 금남공원에서는 필리핀 음식, 의상,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데이’가 펼쳐진다. 프린지페스티벌은 11월까지 매일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남로,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둘째주는 5·18민주광장에서만 진행된다. 문의 062-224-032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심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심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5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심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심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